



BUY (유지)

목표주가(12M) 8,000원(하향)
현재주가(4.30) 5,41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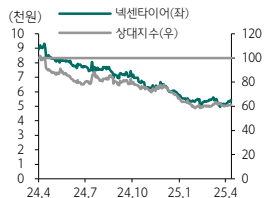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2,556.61
52주 최고/최저(원)	9,320/4,960
시가총액(십억원)	528.4
시가총액비중(%)	0.03
발행주식수(천주)	97,667.9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55.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0.8
외국인지분율(%)	6.98
주요주주 지분율(%)	
넥센 외 2인	67.66
국민연금공단	5.03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3,064.0	3,216.8
영업이익(십억원)	195.8	236.3
순이익(십억원)	126.7	163.8
EPS(원)	1,190	1,564
BPS(원)	19,048	20,489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2,701.7	2,847.9	3,117.6	3,231.1
영업이익	187.0	172.1	191.8	207.1
세전이익	149.7	169.8	160.5	200.0
순이익	102.8	126.4	119.3	148.6
EPS	987	1,213	1,145	1,426
증감율	흑전	22.90	(5.61)	24.54
PER	8.15	4.95	4.72	3.79
PBR	0.49	0.34	0.29	0.27
EV/EBITDA	5.92	4.93	4.31	3.96
ROE	6.26	7.10	6.23	7.30
BPS	16,314	17,905	18,922	20,220
DPS	115	130	130	130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강민아 minahkang@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4년 5월 2일 | 기업분석

넥센타이어 (002350)

관세 부담이 생겼지만, 대형 유통망과의 거래 재개 중

목표주가를 8,000원으로 하향

넥센타이어에 대한 투자 의견 BUY를 유지한 가운데, 미국 관세를 감안해 하반기 위주로 실적 추정을 하향하면서 목표주가를 기존 9,000원에서 신규 8,000원(목표 P/E 7배)으로 조정한다. 1분기 실적은 북미 유통업체와의 거래 회복, 믹스 개선, 체코 2공장의 가동을 상승 등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미국이 수입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현지 공장이 없는 넥센타이어에게 부담인데, 지역별 물량 배분 최적화와 현지 판가 인상 등을 통해 관련 영향을 흡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세 우려는 P/E 4배 중반의 Valuation으로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고, 전년 4분기 크게 하락했던 영업이익률이 외형 성장과 공장 가동을 개선으로 회복되면서 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1Q25 Review: 영업이익률 5.3% 기록

넥센타이어의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영업이익 기준 +18%). 매출액/영업이익은 +14%/-2% (YoY) 변동한 7,712억원/407억원(영업이익률 5.3%, -0.8%p (YoY))이었다. 판매량 증가(+5%)와 고인치 제품 확대 및 환율 상승에 따른 ASP 상승(+9%)으로 매출액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한국/북미/유럽/기타에서 각각 4%/2%/32%/6% (YoY) 증가했다. 매출 비중이 24%인 북미에서는 완성차 판매 부진에도 고인치 비중 확대 및 전년 하반기 위축되었던 주요 유통 거래선과의 거래 회복, 그리고 신규 거래선 판매 등으로 증가했다. 41% 비중인 유럽에서는 윈터 및 올웨더 타이어의 호조에 따른 믹스 개선과 체코 2공장의 가동을 상승 등에 힘입어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 글로벌 고인치 비중은 글로벌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덕분에 2.8%p (YoY), 3.4% (QoQ) 상승한 37.1%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0.8%p (YoY), +3.1%p (QoQ) 변동한 5.3%를 기록했다. 믹스 개선과 운반비 하락, 그리고 체코 공장의 가동을 상승 등이 긍정적이었던 반면, 원재료 투입원가가 상승하고 연구개발비/광고선전비 등도 증가한 것은 부정적이었다.

컨퍼런스 콜의 내용: 미국 유통 거래선에 대한 거래 관계 회복 중

넥센타이어는 전년 하반기 경영난으로 거래가 크게 감소했던 미국 대형 유통 거래선과의 거래가 재개되면서 RE 매출액이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발효 전까지 선적 물량을 최대화해 현지 재고를 확충하고, 이후 지역별 물량 배분 최적화와 판가 인상 등으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분기까지는 현지 재고로 미국 판매량을 충당할 수 있고, 3분기 이후 시물레이션상 수익성이 1%~2%p 하락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 중이다. 매출채권이 급증한 것은 미국 대형 유통망과의 거래가 재개되면서 해당 부분만큼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유럽 내 체코 2공장은 1분기 가동률이 60%까지 상승했고, 내년 초까지 100%를 목표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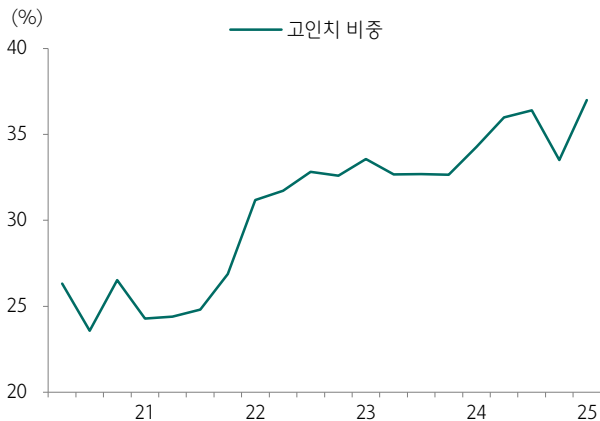
도표 1. 넥센타이어의 분기실적 추이

(단위: 십억원, \$)

구분	1Q24	2Q24	3Q24	4Q24	1Q25P	2Q25F	3Q25F	4Q25F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678	764	709	698	771	828	772	746	2,597	2,702	2,848	3,118	3,231
한국	111	112	116	124	116	120	119	125	409	454	463	480	489
북미	177	191	174	140	181	201	192	175	679	722	683	749	779
유럽	240	307	273	314	317	338	300	320	948	1,005	1,135	1,275	1,313
기타	149	153	146	120	158	170	161	126	561	522	568	614	650
매출원가	501	540	498	517	570	594	543	553	2,166	1,962	2,055	2,259	2,337
매출원가율	73.8%	70.7%	70.2%	74.1%	73.9%	71.7%	70.3%	74.1%	83.4%	72.6%	72.2%	72.5%	72.3%
운반비	64	78	83	80	73	75	66	63	436	235	305	277	275
운반비율	9.4%	10.2%	11.7%	11.5%	9.5%	9.0%	8.5%	8.5%	16.8%	8.7%	10.7%	8.9%	8.5%
판매비	136	161	159	165	161	178	179	149	486	552	621	667	687
판매비율	20.0%	21.1%	22.4%	23.7%	20.9%	21.5%	23.2%	19.9%	18.7%	20.4%	21.8%	21.4%	21.3%
영업이익	42	63	52	15	41	57	50	44	(54)	187	172	192	207
영업이익률	6.1%	8.2%	7.4%	2.2%	5.3%	6.8%	6.5%	6.0%	-2.1%	6.9%	6.0%	6.2%	6.4%
세전이익	49	67	(2)	57	48	44	37	32	(40)	150	170	161	200
세전이익률	7.2%	8.7%	-0.3%	8.1%	6.2%	5.3%	4.8%	4.3%	-1.6%	5.5%	6.0%	5.1%	6.2%
순이익	41	44	(7)	48	40	32	27	21	(28)	103	127	120	149
순이익률	6.0%	5.8%	-0.9%	6.9%	5.2%	3.8%	3.5%	2.8%	-1.1%	3.8%	4.4%	3.8%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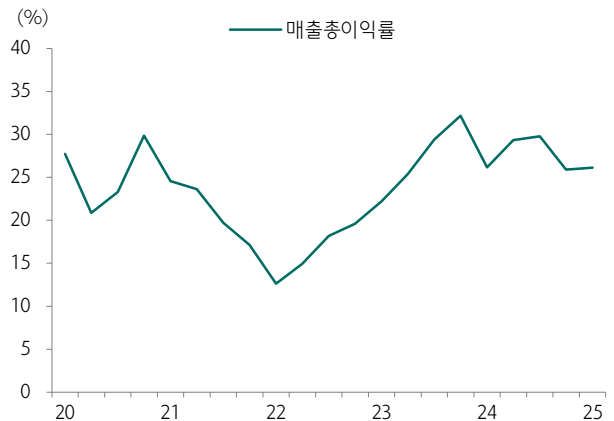
자료: 넥센타이어, 하나증권

도표 2. 넥센타이어의 고인치 타이어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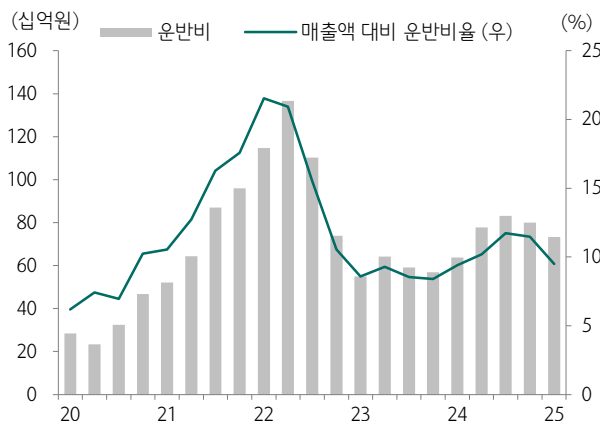
자료: 넥센타이어, 하나증권

도표 3. 넥센타이어의 매출총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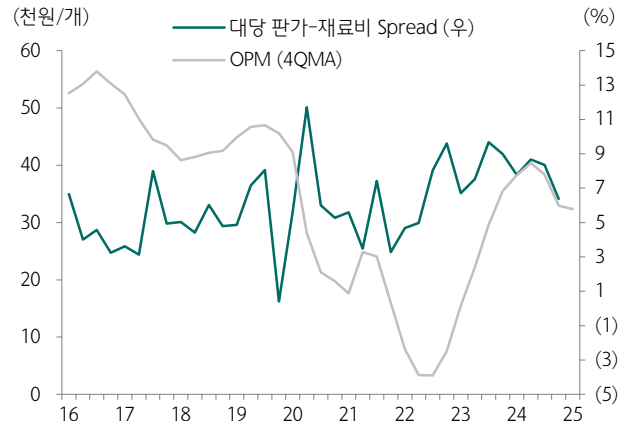
자료: 넥센타이어, 하나증권

도표 4. 넥센타이어의 매출액 대비 운반비 비율 추이



자료: 넥센타이어, 하나증권

도표 5. 넥센타이어의 판가-재료비 Spread와 영업이익률 비교



자료: 넥센타이어, 하나증권

넥센타이어 1Q25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1. 실적

[주요 경영 성과]

신차 판매량과 OE시장 수요

중국의 이구환신 영향을 바탕으로 양호한 성장세 기록. 25년 이구환신 정책은 노후 차량의 폐차와 교체 지원 기준을 기존 3단계 배기가스 배출 기준에서 4단계로 상향. 또한, 폐차 대상이 되는 내연기관차의 등록 시점을 기존 대비 1년 연장하는 등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비. 중국 OE 시장 수요가 누적 기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유럽과 북미 지역의 OE 부진을 만회.

당사는 시장 상황과 별개로 안정적인 OE 수주 물량에 기반해 주요 지역의 OE 매출은 지속 성장.

글로벌 RE 시장 수요

글로벌 RE 시장 수요 확대는 유럽이 견인. 특히 윈터 및 올웨더 타이어 중심의 수요가 강세.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은 등은 특정 마크가 각인된 제품만 겨울용 타이어로 인정. 체코, 노르웨이, 핀란드 또한 이러한 제품을 장착하도록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등 유럽의 겨울용 타이어 규제 기준이 변경되며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 중심으로 시즌 제품 판매 증가. 반면 북미 RE 시장은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수요 위축된 모습.

금년 당사는 유럽과 북미 중심으로 외형 성장을 목표하고, 특히 북미는 하반기 중 성장세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비용

원자재와 운임의 불확실성이 확대. 천연고무와 합성고무는 톤당 2천달러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20% 높은 수준. 중국의 소비 경기 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타이어와 같은 중국 내 전방 산업의 원자재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되어 원자재 가격이 지지되는 모습. 그러나, 3~4월 천연고무 시장 가격이 전월대비 10% 하락한 반면, 합성고무는 증가하는 등 변동성 확대.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1월부터 3월까지 10주 연속 하락하며 23년 12월 수준인 1,200pt에 근접. 국가별 관세 대응과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 등으로 다시 변동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

[1분기 경영 실적]**매출액 7,712억원(+14% (YOY))**

전 지역에서 견조한 판매 지속, 유럽 2공장 증설 효과가 매출로 실적화되는 흐름. 특히 판매 수량 증가세는 OE 부문에서 두드러진 모습. 글로벌 시장 트렌드와 달리 당사는 신차 판매 위축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

고인치 타이어 및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 비중 확대에 믹스 개선 지속. 1분기 고인치 매출 비중은 37%, 23년 31%, 24년 35%에 이어서 꾸준히 상승. 프로덕트 믹스가 개선되는 가운데 지역 믹스 개선 효과가 더해지면서 지역별 매출 분포도 정상화. 북미 지역 매출 비중 24%로 상승.

매출원가율 73.9%

원자재 시장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평년 수준의 매출 원가율을 유지.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산지 또는 생산 업체별 소싱 비중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비용 상승 영향을 최소화, 해상운임의 안정화도 반영.

영업이익 407억 원, 당기순이익 399억 원

영업외손익의 일회성 비용 및 특이사항은 없었음. 비중이 큰 외화환산손익의 경우 1분기 말 유로화 환율이 전기 말 대비 상승하며 이익 발생.

[지역별 매출]**북미지역**

1분기 매출액은 1,813억원

OE 시장은 스텔란티스 산하 신차 판매가 부진했으나, 폭스바겐이나 현대차 대상 판매 호조. 북미 내 완성차 생산 공장에서 당사 제품이 장착되는 주요 차종은 폭스바겐 아틀라스, 현대 투싼 등. 판매 증대와 함께 OE 내 고인치 비중 상승하며 믹스 개선.

RE 시장은 지난 분기 저점 통과 후 회복세. ATD의 내부 정비가 완료된 후부터 거래 재개. 신규 거래선인 리테일 업체들과의 협력 또한 안정화되며 판매량 정상화.

북미 지역 OE 및 RE 합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점을 감안, 북미 매출 회복 속도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 다만, 관세 부과 발효에 대한 불확실성 잔재.

유럽지역

1분기 매출액 3,165억원

유럽 OE 시장은 전년 하반기부터 레거시 카메이커들의 판매 부진 지속으로 수요 자체는 침체. 3월에는 신차판매 반등으로 1,2월 하락을 상쇄. 하지만, 출시 2-3년 전 신차 개발 단계부터 OE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특성 상 당사가 선제적으로 확보해 둔 안정적인 수주 물량과 다변화된 OE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시장 상황과 다르게 매출 성장.

OE는 고판가 차종 중심으로 판매 확대되며 외형 성장 뿐만 아니라 믹스개선 효과도 반영된 모습.

RE 시장은 프리미엄 라인업 제품 중심으로 판매 호조. 통상 겨울용 판매가 가장 저조한 1분기 계절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윈터 및 올웨더 타이어 매출 비중 상승. 특히 올웨더 타이어 매출은 역대 최대 분기 매출 기록.

1분기 말 기준 2공장 가동률 60% 기록.

한국

1분기 매출액은 1,156억원

OE부문에서 내연기관 차량 판매 부진했으나, 1월 중순 2025년 EV 보조금 정책을 공표한 영향으로 2-3월 EV 판매가 크게 증가하며 신차 판매량이 3% 정도 증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EV 중 가장 많은 차종의 OE 공급을 진행. EV판매 호조 수혜를 누리며 EV향 OE 매출 하이싱글 성장을 기록. 3월 출시된 기아의 EV4에 OE공급 신규 개시.

RE부문에서 국내 최초 타이어 렌탈 기반 오토 서비스 ‘넥스트 레벨’이 누적 판매 수량 200만본을 돌파하는 성과 달성. 구매 금액을 월 대여료로 납부하는 서비스 특성 상, 금액 부담 없이 고급형 타이어를 이용할 수 있어 고객층을 확대

OE에서는 EV 판매가 증가, RE에서는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증가하며 한국 지역의 고인치 매출 비중이 지속 상승하는 효과를 얻는 모습

기타

1분기 매출액은 1,578억원

OE는 멕시코, 일본, 중국 등 국가로 공급. 특히 1분기에는 일본 미쓰비시 및 멕시코 폭스바겐 등을 중심으로 판매 호조.

RE의 경우 중동, 아태, 중남미 등을 포함. RE 매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동은 1분기에 판매가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을 반영 최적화된 물량 배분으로 RE 매출 역대 최고치 기록. 기타 지역은 역대 최고 분기 매출 경신. 고인치 매출 비중 또한 증가.

향후 기타 지역 매출이 미국 관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 수주량 대비 생산 캐파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주요 판매 거점인 유럽과 북미를 우선으로 지역별 생산량 배분. 그러나 관세 부과가 개시되면 미국으로 배분하던 물량 일부를 미국외 지역으로 재분배하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도 있음.

[주요 경영 현황]

유럽에서는 2공장 증설 Ramp-up 순항 이어가는 모습. 1분기 말 기준 가동률 60%까지 상승. 특히, 생산량 증가분이 판매로 이어지며 유럽 지역 매출 성장 지속. 유럽 공장의 풀 가동을 목표하는 내년 초부터 글로벌 시장 전역에서 당사 포지셔닝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 강화된 겨울용 타이어 규제 영향으로 하반기 신제품 출시할 예정. 윈터 타이어가 올웨더 타이어 수요로 이전되는 모습 관찰되고 있지만, 여전히 건조한 윈터 타이어 수요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겨울용 타이어 규제 강화 등 시장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고성능 윈터 타이어 라인업 제품 출시. 해당 제품은 유럽에 우선적으로 출시.

미국은 관세 발효 전까지선적 물량을 최대로 확보해 1차적인 대응 실행. 당사 생산 캐파를 감안, 현재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며 미국 지역 수요에 충분히 대응가능한 상황으로 지역별 물량 배분의 최적화를 통해 관세로 인한 실적의 영향 최소화할 것.

판가측면에서 관세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원자재와 해상운임, 반덤핑 관세 부과 등 비용 상승 요인이 작용할 경우 자연스럽게 판가에 전이. 당사가 지속 추진 중인 유통 다운스트림 강화를 통해 소매판매 및 창고판매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평균 판가 상승, 수익성 강화 가능. 관세 발효 전까지 수입 통관이 완료되는 물량을 추정하면, 2분기 미국 판매량을 충당할 수 있는 현지 재고량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관세 부과가 현실화 되었을 때, 상반기 실적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일본은 일본으로 수입돼서 판매되는 차종들 중에 당사 제품을 OE로 장착한 차종들이 지속 증가. 대표적으로 BMW x1, 벤츠 E클래스, 아우디 A3 등.

호주는 차량 보급대수와 1인당 차량 보유 대수 모두 상위권에 속한 자동차 산업에서 중요한 시장. 22년 당사는 호주 지점을 법인으로 승격시킨 이후 호주 지역 실적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 두 개의 Distribution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유통 경쟁력 강화, 24년 매출은 전기 대비 3배 이상 증가. 또한, 호주는 대형차량 이용 비중이 80%에 달하는 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고인치 제품 중심으로 수주를 촉진.

EV시장은 연도별로 편차는 존재하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규모 확대는 지속될 것. 당사는 EV에 대응하는 제품 개발의 최종 목표를 EV 전용 브랜드 출시가 아닌 모든 라인업의 상향 평준화로 설정

[글로벌 시장 동향]**타이어 시장**

유럽과 북미 지역의 OE 수요는 역성장 중, 중국 정부 주도의 소비 진작 노력으로 그 영향을 상쇄하고 있기는 하지만 2월의 성장세를 3월까지 이어가지는 못함. 다행히 유럽 지역이 견인하는 성장세로 미드 싱글 성장을 기록. 2월에 다소 부진했던 북미 지역 RE 수요 또한 3월 들어 반등하며 관세발 타이어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 완화. 아직은 미국 내 타이어 유통 재고의 급격한 변동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타이어 대상 관세 발효일이 가시권에 접어든 만큼 단기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수 있어서 시장 상황을 주시

원자재 시장 동향

천연고무의 경작지 감소와 이상기후 지속으로 공급부족은 지속. 23년의 안정적인 시황과 비교하면 나름대로 여전히 고단가 상태가 유지는 되고 있는데 3월 들어서 천연 고무 시장 가격이 갑작스럽게 하락 중으로 향후 추세 확인이 필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될 경우 중국 중심의 원자재 수요 둔화 가능성 존재.

운송 시장 동향

1분기 초중반에는 미국이 높은 수위의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고 일부 국가가 이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하는 등 기존의 무역 질서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면서, 밀어내기 물량이나 사전 과다 선적의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음. 오히려 전체 혼선이 글로벌 선적 활동의 둔화를 야기해 해상 운임의 하락을 유발. 주요 항로에서 선복량 활용률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신규 항로 서비스 출시나 견조한 신규 선박 공급으로 시장의 공급 압박까지 더해지는 상황. 선사들은 운임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정 항만을 건너뛰거나 전체 항로의 운항을 취소하고 있지만, scfi는 1,500pt를 여전히 하회.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단기 보험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주요국의 경기 둔화나 선사 얼라이언스 간의 시장 장악을 위한 경쟁 심화로 2025년 해상운임은 급격한 상승보다는 안정화된 흐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

2. Q&A

문) 북미 매출 급증한 배경은?

답) 미국에서는 주요 고객층이 향후 2분기부터 시장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구매하는 패턴이 보여지지 않음. 매출이 14% 증가했는데, 이 중 수량 판매가 4-5%, ASP 상승률이 8-9%. ASP의 경우 환율 효과가 있었음. 그럼에도 외화 기준 평가 상승을 긍정적으로 봄.

문) 관세 부과에 따른 평가 인상 계획은?

답) 금년 1분기 중 윈터 타이어를 제외한 유럽 판매 제품에 대해서 미드 싱글 정도의 인상 진행. 한국과 일본, 중남미 등 기업 맞춤형으로 평가 인상을 이미 고지. 인상된 평가는 아마 2분기나 3분기 중에 적용 개시될 것.

문) 유럽 지역에서 작년 대비 RE와 OE 비중 차이가 있는지?

답) 전체 평균은 RE:OE 비중 보통 80:20. 다만, 우리는 공장이 있는 지역은 OE사가 있는 지역으로, OE 비중이 평균 대비 소폭 높은 경우가 있음. 유럽 지역은 풀 가동 감안 OE 비중을 보다 높게 잡으려고 노력 중. 1분기 유럽 지역 OE 비중은 작년 대비 2% 상승.

문) 지역별 수익성은?

답) 미국이 고인치 비중도 높고, 수익성 가장 높음. 중동도 높은 편에 속함. 그 뒤로는 유럽, 한국, 기타 순. 원가는 비슷하나, ASP 차이로 수익성이 움직임. 미국이 수익성 높은 상황에서 관세 부과로 영향 받는 것 아닌지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3분기부터 관세 25% 영향 받는 것을 고려 시, 1-2%p 정도 영업이익률에 영향 미칠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북미 판매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

문) 매출채권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유가 무엇인지? 차입금 또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 2024년 말 ATD 향으로 거래했던 물량에 대한 매출채권 전액 회수. 이에 따라, 2024년 말에 매출채권 급감한 것에 대해 반대 효과로 두드러지게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 것. 현재는 ATD가 정상화되었고, 1분기부터 거래가 정상화로 돌아오며 ATD향 매출채권이 제로였다가 늘어난 만큼 해당 부분이 커 보이는데, 이는 정상화되는 과정임.

차입금과 관련해서는 대환 중. 1분기에 차입해서 2분기 초 대환을 완료 함. 일시적으로 올라간 부분.

문) 1분기 OE신규 공급 차종은?

답) 총 4개로, BMW ix, E시리즈, x3, 기아 EV4.

추정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단위:십억원)				
	2023	2024	2025F	2026F	2027F
매출액	2,701.7	2,847.9	3,117.6	3,231.1	3,376.5
매출원가	1,962.4	2,055.0	2,259.1	2,337.3	2,442.0
매출총이익	739.3	792.9	858.5	893.8	934.5
판매비	552.3	620.8	666.7	686.8	710.8
영업이익	187.0	172.1	191.8	207.1	223.7
금융손익	(48.0)	(15.8)	(39.4)	(17.8)	(12.5)
종속/관계기업손익	0.0	0.0	0.0	0.0	0.0
기타영업외손익	10.7	13.5	8.1	10.8	10.8
세전이익	149.7	169.8	160.5	200.0	222.0
법인세	46.6	43.1	40.9	51.0	56.6
계속사업이익	103.1	126.7	119.6	149.0	165.4
중단사업이익	0.0	0.0	0.0	0.0	0.0
당기순이익	103.1	126.7	119.6	149.0	165.4
비지배주주지분 손이익	0.3	0.4	0.3	0.4	0.5
지배주주순이익	102.8	126.4	119.3	148.6	165.0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118.1	177.6	119.0	148.2	164.5
NOPAT	128.8	128.5	142.9	154.3	166.7
EBITDA	383.4	407.4	427.2	442.6	459.3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4.02	5.41	9.47	3.64	4.50
NOPAT증가율	흑전	(0.23)	11.21	7.98	8.04
EBITDA증가율	169.62	6.26	4.86	3.60	3.77
영업이익증가율	흑전	(7.97)	11.45	7.98	8.02
(지배주주)순이익증가율	흑전	22.96	(5.62)	24.56	11.04
EPS증가율	흑전	22.90	(5.61)	24.54	11.08
수익성(%)					
매출총이익률	27.36	27.84	27.54	27.66	27.68
EBITDA이익률	14.19	14.31	13.70	13.70	13.60
영업이익률	6.92	6.04	6.15	6.41	6.63
계속사업이익률	3.82	4.45	3.84	4.61	4.90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2027F
주당지표(원)					
EPS	987	1,213	1,145	1,426	1,584
BPS	16,314	17,905	18,922	20,220	21,675
CFPS	4,683	5,128	4,269	4,413	4,593
EBITDAPS	3,680	3,911	4,101	4,249	4,410
SPS	25,936	27,340	29,929	31,018	32,414
DPS	115	130	130	130	130
주가지표(배)					
PER	8.15	4.95	4.72	3.79	3.42
PBR	0.49	0.34	0.29	0.27	0.25
PCFR	1.72	1.17	1.27	1.23	1.18
EV/EBITDA	5.92	4.93	4.31	3.96	3.60
PSR	0.31	0.22	0.18	0.17	0.17
재무비율(%)					
ROE	6.26	7.10	6.23	7.30	7.57
ROA	2.51	2.87	2.59	3.16	3.41
ROIC	4.39	4.08	4.38	4.69	4.99
부채비율	148.27	144.41	135.13	125.22	117.42
순부채비율	85.34	74.57	64.97	56.63	48.49
이자보상배율(배)	3.09	1.81	2.08	2.53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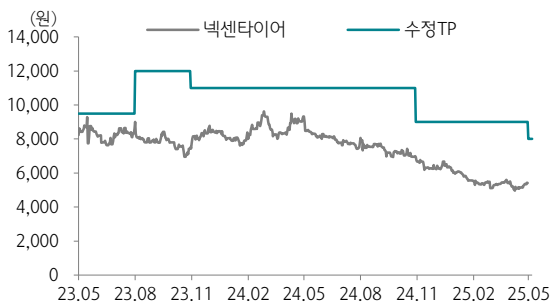
자료: 하나증권

대차대조표	(단위:십억원)				
	2023	2024	2025F	2026F	2027F
유동자산	1,556.1	1,875.1	1,924.6	2,008.7	2,149.2
금융자산	322.8	291.9	382.5	410.7	479.5
현금성자산	237.6	137.4	224.6	251.3	318.3
매출채권	430.1	513.7	516.6	535.4	559.5
재고자산	640.8	894.0	840.1	870.6	909.8
기타유동자산	162.4	175.5	185.4	192.0	200.4
비유동자산	2,676.6	2,699.4	2,725.9	2,751.1	2,776.5
투자자산	139.7	60.7	62.6	63.4	64.4
금융자산	139.7	60.7	62.6	63.4	64.4
유형자산	2,325.1	2,423.1	2,447.4	2,471.7	2,496.0
무형자산	21.7	18.4	18.7	18.9	19.0
기타비유동자산	190.1	197.2	197.2	197.1	197.1
자산총계	4,232.7	4,574.5	4,650.5	4,759.8	4,925.7
유동부채	1,330.0	1,454.3	1,449.8	1,439.3	1,449.6
금융부채	911.8	806.8	847.5	817.9	803.6
매입채무	102.2	164.3	145.9	151.2	158.0
기타유동부채	316.0	483.2	456.4	470.2	488.0
비유동부채	1,197.8	1,248.6	1,222.8	1,207.1	1,210.6
금융부채	865.9	880.8	820.0	789.7	774.5
기타비유동부채	331.9	367.8	402.8	417.4	436.1
부채총계	2,527.8	2,702.9	2,672.6	2,646.4	2,660.2
지배주주지분	1,696.4	1,862.2	1,968.1	2,103.2	2,254.9
자본금	54.1	54.1	54.1	54.1	54.1
자본잉여금	67.4	67.4	67.4	67.4	67.4
자본조정	(3.0)	(3.0)	(3.0)	(3.0)	(3.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72.1	137.8	137.8	137.8	137.8
이익잉여금	1,505.8	1,605.9	1,711.7	1,846.9	1,998.5
비지배주주지분	8.5	9.4	9.7	10.2	10.6
자본총계	1,704.9	1,871.6	1,977.8	2,113.4	2,265.5
순금융부채	1,455.0	1,395.7	1,285.0	1,196.8	1,098.6

현금흐름표	(단위:십억원)				
	2023	2024	2025F	2026F	2027F
영업활동 현금흐름	241.9	259.3	378.0	333.2	354.2
당기순이익	103.1	126.7	119.6	149.0	165.4
조정	321.2	305.4	206.2	192.9	199.9
감가상각비	196.4	235.3	235.4	235.5	235.6
외환거래손익	9.8	(24.8)	(33.1)	(47.4)	(40.2)
지분법손익	0.0	0.0	0.0	0.0	0.0
기타	115.0	94.9	3.9	4.8	4.5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	(182.4)	(172.8)	52.2	(8.7)	(11.1)
투자활동 현금흐름	(323.9)	(175.6)	(232.2)	(214.8)	(222.6)
투자자산감소(증가)	6.3	87.4	(1.9)	(0.8)	(1.0)
자본증가(감소)	(323.4)	(205.2)	(250.0)	(250.0)	(250.0)
기타	(6.8)	(57.8)	19.7	36.0	28.4
재무활동 현금흐름	101.3	(102.0)	(33.4)	(73.4)	(42.8)
금융부채증가(감소)	111.6	(90.2)	(20.0)	(60.0)	(29.5)
자본증가(감소)	0.0	(0.0)	0.0	0.0	0.0
기타재무활동	0.0	0.0	0.0	(0.0)	0.1
배당지급	(10.3)	(11.8)	(13.4)	(13.4)	(13.4)
현금의 증감	19.2	(18.2)	8.4	26.8	67.0
Unlevered CFO	487.8	534.2	444.7	459.7	478.4
Free Cash Flow	(81.6)	54.2	128.0	83.2	104.2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넥센타이어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5.1	BUY	8,000		
24.10.30	BUY	9,000	-35.83%	-24.89%
23.10.30	BUY	11,000	-26.64%	-12.55%
23.8.1	BUY	12,000	-34.96%	-29.75%
23.5.24	1년 경과		-	-
22.5.24	BUY	9,500	-25.39%	-2.21%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송선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5년 5월 2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송선재)는 2025년 5월 2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 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 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4.95%	5.05%	0.00%	100%

* 기준일: 2025년 04월 30일